

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

I. 개 요

1. 일시 : 2016. 7. 27. (07:30~09:30)
2. 장소 : 서울팔래스호텔 다봉
3. 발표자 :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

4. 참석자 (총 11명)

- 원외 참석자 (3명)

김시중(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, 교수)
최낙섭(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)
사동철(POSRI 수석연구원)

- 원내 참석자 (8명)

이승신, 정지현, 이현태, 신꽃비, 나수엽, 김홍원, 이한나, 조고운
(이상 직급생략)

4. 제 목

- G2 시대 중국의 리벨런싱

II. 주요 논의 사항

1) 발제내용

- 2010년 시작된 성장전략의 전환은 수출과 투자에 의존한 고도성장 구조를 내수소비가 주도하는 안정적인 중속성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임.
- 대내외 불균형에 대한 중국 내의 인식은 2000년대 내내 지속적으로 진화하여,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던 데서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왔음.
 - ° 2010년 이후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은 균형 문제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.
 - ° 13.5 계획에서는 빈곤해소, 사회보장, 공공서비스를 강조함.
- 중국 내부적으로는 불평등과 불안정이 공산당의 장기집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형성
-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이 국내 불균형 확대, 경기불안정, 글로벌 불균형의 중요한 요인이었으며,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노멀 구조아래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인식
 - ° 중국은 수출 1위국으로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13.8%(2015)에 달해 더 이상 이를 증가하기는 어려움.
-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추월하여 G2 국가가 되었으며,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 중 세계 경제성장의 30~50% 기여를 한 만큼 불안한 세계시장보다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인 것으로 판단
 - ° 2020년까지 중국 소비시장 증가규모가 2.3조 달러에 달할 전망
- 대내적인 리밸런싱으로서 중국은 수출 · 투자 중심에서 내수 · 소비 중심으로 전환 중임.
- 2010년 12차 5개년 계획에서 입안된 후 5년간 내수 소비를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 구조로 전환이 진행 중임.
- 이른바 “장기적인 소비확대 메커니즘” 구축을 표방하면서 빠른 임

- 금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내수 소비 성장기반을 마련함.
 - 빠른 임금상승의 결과 민간투자가 둔화되고 투자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성장률 둔화로 연결
 - 2013년 11월 18기 3중전회에서 “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화”를 중국의 향후 10년 장기 과제로 선언함.
 -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(개혁개방, 시장화+세계화)에서 탈피하여 중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 및 시장을 구축
 - 중국 국유기업은 중국 내수 및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수단이 됨.
 - 과거에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이 문제였으나, 앞으로는 그 불공정성이 더 문제가 될 것임.
 - 산업성장 방식은 저렴한 생산요소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결합시키던 방식에서, 거대 시장을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토양으로 삼는 방식으로 전환
 - 최근 다수의 성공사례는 기술적 혁신이나 국제경쟁력 획득이 아니라 단순히 국내시장을 장악함으로써 탄생(예: BAT, 샤오미, 화웨이 등 혁신 없는 성공)
 - 성장전략의 전환이 수요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에 대해 공급측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기업투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
 - 수출 및 투자 둔화에 따라 기존 산업의 정리가 불가피하며, 중국 정부는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 의지를 표명
 - 새로운 내수 수요가 예상되는 부문(고급소비재, 중간재, 서비스, 신산업)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
- 대외적인 리밸런싱으로서 동북아 분업구조의 하위 참여자에서 post China 분업구조의 조직자로 변화를 모색
- 임금상승과 산업고도화에 따라 국제분업 구조 내에서 지위가 상승하고, 노동집약적 최종재 생산국(가공무역)에서 자본집약적 중간재 공급국으로 변화하는 것은 필연적임.
 - 이는 수입에 의존했던 국내 중간재 시장을 장악하고(홍색공급망, 수입대체), 중국의 임금상승에 따라 중국 밖에 형성될 Post China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양 방향의 변화를 포함

- 해외투자 전략이 수출확대를 뒷받침할 자원, 기술, 브랜드 확보에서, 중국 시장에서의 활용을 염두에 둔 외국기업 사들이기(global acquiring, 买回来),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기지 해외 이전, 장기적인 중간재 해외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 다양화
 - 중국 민간기업의 선진국 대상 M&A 증가 및 업종 면에서도 다양화 추세
 -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매개로 선진국 시장을 대체할 신규 생산기지+중간재 시장을 창출
- '15년 8월 11일 환율제도 변경 및 12월 신제도 적용으로 달러에 대해 전략적으로 페그된 통화에서 글로벌 통화시장의 변동에 연동되는 통화로 변화
 - 달러에 대한 명목환율의 안정에서 국제환율 변동을 고려한 실효환율의 안정을 추구

□ 성장전략 전환 과정에서 '과도기적' 불안 요인이 등장하기도 함.

- 대내적으로는 성장둔화가 설비과잉 및 기업부채 문제를 야기
- 대외적으로는 제도변화가 환율불안, 외환유출 및 환율전쟁을 초래

2) 토론 내용

- 신산업이 아닌 기존 산업에서는 Catch-up이 어렵지 않은가?
 - 금일 발표의 핵심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며, 먼저 시장을 만들어주면 ‘기술+시장’의 결과로 쉽게 Catch-up할 수 있음.
 - 기술보다 M&A할 기업을 고르는 기업의 능력이 중요
 - 구글은 큰 기업이지만 수십 개의 Business unit으로 나뉘어져 있으며, 이들 unit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을 합병한 것임.
 - 중국이 마음을 먹고 이러한 실리콘밸리의 기술스타트업들을 M&A한다면 빠른 Catch-up 가능
 - 앞으로는 미국이 보호주의나 고립주의 등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통한 M&A를 막으려고 할 것임.
-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화가 중국 리밸런싱에서 가지는 의미는?
 -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제도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유기업의 활력, 영향력, 통제력을 강조하고, 농촌 토지 공유제를 유지하며, 사회보장 재원과 국유자산 수익을 연결하고 있음.
 - 사실상 중국 특색의 시장경제로서, 시장경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, 소유제, 토지제도, 노동시장, 교육제도, 사회보장 등 분야에서 중국 현실에 맞는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것임.
 - 이를 통해 중국은 국유기업을 유지하고자 하며, 일종의 불공정 경쟁 구조를 형성함.
 - 현재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이 106개인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은 글로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, 중국 특색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성이 더 문제가 될 것임.
- 발표내용에서 국유기업의 ‘혁신성+신산업 주도’를 언급했는데, 국유기업은 아직 전통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반

면 신산업에서 내부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체로 민영기업이 아닌가?

- 알리바바의 경우 민영기업이지만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, 이외에도 외자 민영기업이면서도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.
- 이와 같이 큰 범위에서의 국유기업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면 됨.

□ 발표내용대로 중국 시장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기술표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시점에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음.

- 원천기술 창조보다는 기존 기술의 상업화 모델을 통해 시장에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중국식 혁신임.
- 예컨대 알리페이는 기존의 이베이가 하던 것을 중국에서 상업화한 것임.
- 이처럼 혁신에 대한 접근방법이 달라져서 글로벌기업의 해외투자보다는 기술기업을 사들여오는 접근 방식이 대폭 증가
- 전기차의 경우 미국은 기존 주유소 시스템을 바꾸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, 중국은 그런 시스템이 애초에 없어서 네트워크 비용이 더 적게 소요되므로 전기차 등 개발 발전이 용이함.
- 이처럼 중국은 특정 부문의 혁신을 일반화하고 있는 바, 앞으로 중국 기술표준의 일반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.

□ 발표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중국은 혁신이 아니라 사업 성공 또는 상업화 성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사업 성공도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됨.

- 미국 또한 시장이 커서 성공한 것이며, 중국은 이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대등한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임.

□ 미국이 ICT 분야를 어느 정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, 어떻게 생각하는가?

- 예전에는 실리콘밸리 방문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매우 오픈되어 있고 심천에 지사도 만들었음.
- 최근 3~4년 동안 인텔은 중국의 100개 넘는 기업에 투자하여 인텔 매출 기준 중국이 20%를 차지함.
- 현재로서는 자본이든 기술이든 중국이 미국보다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.